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4.11.11(월) 14:00

탄녹위,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참석 계기로 녹색연대 및 탄소중립 협력 확대

- “녹색 세계를 위한 연대” 주제로 구성된 COP29 한국관 부대행사를 통해 기후위기 해결 위한 한국의 국제감축·녹색금융·에너지전환 등 노력 소개
- 주요국 및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인사 면담을 통해 탄소중립 분야 협력 모색

-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한화진 민간위원장, 이하 ‘탄녹위’)는 11월 11일(월)부터 11월 22일(금)까지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개최되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 참석을 계기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소개한다.
- 총회 기간 동안 한국 홍보관에서는 40여 개의 부대행사가 진행되는데, 탄녹위는 ▲국제감축, ▲기후금융, ▲청정에너지, ▲디지털 탄소중립 등을 주제로 총 5개의 세미나를 주최하고, 무탄소 에너지 확산, 철강산업 국제 표준 등의 논의에도 참여한다.
- 현지 시각 11월 12일(화)에는 탄녹위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감축 협력 파트너십」 세미나를 개최하여, 파리협정 제6조를 기반으로 협력적 접근법을 추진해온 국가들이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면서 국제감축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이어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와 공동으로 「탄소시장과 국제통상에서의 데이터 투명성 강화방안」 세미나(11.13)를 열어 탄소시장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에 대해 토의하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후금융 조성방안」 세미나(11.14)를 공동 개최하여 기후재원 조성을 위한 민간 재원과 혁신적 수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 또한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 선박, 항공 등 수송 부문 연료의 녹색 전환을 위해, 태백시·KAIST·플라젠과 공동으로 「청정 메탄올 신산업 촉진 컨퍼런스(11.15)를 열고, 지난해 11월 탄녹위 전체회의에서 발표한 “청정메탄올 신산업 창출 추진전략”의 경과를 공유한다.

- 11월 16일(토)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과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디지털 전환」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디지털 기술에 의한 탄소 감축(Green by Digital) 및 디지털 인프라 자체의 탄소 저감(Green of Digital)을 위한 기술 현황을 공유하고 녹색 디지털 생태계 구축방안을 논의한다.
- 이외에도 무탄소 에너지 연합(CF) 사무국이 주최하는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 기후위기 대응의 새로운 해법」 세미나에 참석하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에너지전환 가속화 및 무탄소 에너지원 확산 필요성을 알리는 등 다양한 논의에 참여한다.

□ 한화진 민간위원장은 COP29를 계기로 개최되는 국제 기후위원회 네트워크*(ICCN) 총회에 참석하여 기후 거버넌스 및 정책 수립에 대한 국가별 기후위원회 간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기후위기 대응 관련 다양한 현안과 의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할 계획이다.

* 국가별 기후위원회 간 정책, 경험 공유 등 협력 강화를 위해 2021년 설립된 협의체(forum)로 20여 개 기후위원회 참여 중 (탄녹위는 ICCN 설립 시부터 주도적으로 참여)

- 아울러 COP29에 참석하는 맷 킨(Matt Kean) 호주 기후변화청 위원장, 엠마 핀치백(Emma Pinchbeck) 영국 기후변화위원회 최고경영자, 사이먼 도너(Simon Donner) 캐나다 탄소중립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주요 국가 탄소중립 관련 기구들과 고위급 양자 회담을 진행하면서 플라스틱 협상, 배출권거래제 등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 한화진 민간위원장은 “이번 COP29를 계기로 탄녹위는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장기적이고 일관된 목표와 전략을 통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과 녹색전환 동력이 지속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녹색 세계를 위한 연대”(In Solidarity for a Green World)를 주제로 하는 이번 총회에는 190여 개 협약당사국 정부대표, 국제기구, 기업, 학계, 언론, 시민사회 등 각 분야에서 4만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2025년 이후 신규 기후재원 조성 목표와 파리협정 제6조 세부 이행규칙 설정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예정이다.

담당 <총괄>	대통령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소통협력관	책임자	국제협력 담당관	강유식	(044-200-1969)
		담당자	사무관	윤재희	(044-200-1970)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